

##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

백 현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관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는 경우에는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66페이지)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력사소설의 사명과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문제이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지켜야 하는것은 력사소설이 사람들에게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주는 사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력사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사건, 력사적인물, 력사적배경을 그대로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특성을 가진다.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허구에 기초한 소설은 아무리 과거시대를 반영하고있다고 하여도 력사소설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작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력사에 대한 혼돈과 외곡된 인식을 줄수 있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함께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력사소설이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으로서의 본성에 충실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과거의 생활을 그리는 현대의 생활을 그리든지간에 문학은 현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부합되어야 한다.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력사적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재현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력사이야기에 불과하며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더우기 력사적사실을 살린다고 하면서 락후하고 속되고 비본질적인것까지 되살려놓으면 복고주의적경향을 범할수 있다.

력사소설은 반드시 현시대 인간들을 기준으로 그들의 사상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창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력사적사변, 사건을 력사소설의 기본줄거리로 설정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의 사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식교양목적이다.

때문에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력사적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력사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역사소설의 소재탐구작업을 철저히 과학적인 역사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소설작가는 정사, 야사에 실려있는 실지 있었던 역사적사실자료에서 소재를 탐구하여야 한다.

역사소설을 정사, 야사의 기록에 의거하여 창작하여야 하는것은 역사소설의 과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소설창작에서는 실재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역사소설이 문학적성격과 함께 역사문헌적성격도 띠기때문이다.

정사, 야사의 기록은 그 내용이 집필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 기록될수는 있지만 그 역사적사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과학적근거로 된다.

작가 홍명희는 림격정에 대한 당대 역사기록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면밀하게 하는것과 함께 림격정이 활동한 역사의 자취를 따라 세번씩이나 현지를 답사한데 기초하여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을 창작하였다.

작가 최명익은 조선봉건왕조실록, 《병서》, 《평양지》, 《임진록》 등 많은 역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묘향산현지답사에 토대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이바지한 서산대사와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장편력사소설 《서산대사》를 창작하였다.

과학소논문, 학위논문 등 학계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고증해낸 역사자료에 의거하여 소재를 탐구할수도 있다.

역사자료는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고증되고 보충된다.

과학적타당성이 있는 역사보충자료는 역사소설의 소재로 될수 있다.

역사소설창작에서 역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역사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물들을 역사소설의 기본인물로 등장시키는것이다.

역사적사건의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때문에 역사에 실지 있었던 사건을 중시한다는것은 실재한 인물의 역사적공적을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 《리순신장군》, 《망이》, 《최무선》, 《김정호》 등의 역사소설들은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역사발전에 이바지한 각계각층의 애국자들을 원형으로 창작되었다.

역사소설을 창작하는데서 김유신이나 을사오적과 같이 역사에 치욕을 남긴 매국노, 배신자들의 죄행과 추악한 행적, 비참한 결말 등을 역사적사실 그대로 형상에 옮겨놓아 역사적교훈을 새겨주는것도 중요하다.

역사소설창작에서 역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역사에서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작은 사건, 인물이나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기정사실화된 사건, 사실들에도 낯을 돌려야 한다.

역사기록은 봉건왕조중심으로 기록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다사다난한 장구한 역사의 모든 사실, 사건들이 역사기록에 충분히 다 반영될수는 없다.

그리고 역사적사실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세부적인것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이야기,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는 이야기들은 작품

에 옮길수 있다.

단편력사소설 《고달부》는 《평양지》에 기록되어있는 세월향이 자기 동무 옥개와 평양 사람 고달부와 의논하여 적들가운데 가장 광포한 적장을 죽임으로써 침략자들의 사기를 꺾고 우리 인민들의 반격을 용이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는 극히 단편적인 역사기록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데 몸바쳐 싸운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을 보여주었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역사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역사적배경, 정치 및 경제제도, 생활환경, 우수한 민족적풍습 등을 방불하게 재현하여야 한다.

해당 시기의 벼슬에 따르는 등급을 정확히 그려내며 반상의 차별적인 신분제도와 계급적처지를 역사적사실에 맞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족생활의 특징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있는 해당 시기의 옷차림과 식생활풍습, 살림집과 기물,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등 민족의 우수한 생활풍속을 생활화폭으로 펼쳐야 한다.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 제1부에서는 당시 역사적시기에 따르는 생활풍습과 신분적차별, 시대상이 방불히 안겨오도록 인물들의 옷차림에 대한 화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회색공단마고자에 흰 명주바지, 머리에는 망건을 썼고 신은것은 메투리, 허리에는 귀주머니, 주홍코가 열어서 시퍼런데 바른손은 등뒤로 돌려 저고리속에 넣고 장죽든 왼손으로는 연방 활개짓을 하며 연자방아간옆을 지나 길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울안으로 들어갔다.》(동소임 김침지에 대한 묘사)

《머리채를 감아엎은 우에 수건을 동이고 누덕누덕 기운 북덕무명겹바지저고리에 목다리버선, 키는 중키,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생긴 나이 한 이십된 총각이다.》

(주인공인 농민 오상민에 대한 묘사)

《상하가 없이 사치가 성행하던 시절이라 옷차림도 번지르르하다. 곁에 입은 두루마기도 명주, 두루마기밑에 처지게 입은 바지도 명주, 명주로 휘감았다. 그러나 인물은 보잘것이 없었다. 시꺼먼 얼굴에 코가 안장코… 안장코도 좋지만 눈찌가 사나운것이 큰 흠이다.》

(좌포청의 포교 김가에 대한 묘사)

보는바와 같이 옷차림이나 식생활 등을 역사적사실에 맞게 형상하는것도 역사적사실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당시 시대상을 역사주의적원칙에 맞게 보여줄수 있는 방도의 하나로 된다.

### 력사소설창작에서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

력사소설창작에서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역사의 교훈과 경험을 밝히는 원칙에서 소설의 주제를 의의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오늘의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새롭게 밝혀내고 그려내야 한다.

력사소설의 사명은 문학일반의 사명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력사소설도 사람들에게 옮

바른 진리를 깨우쳐주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력사자료에서 오늘 우리 혁명에 필요한 주제를 도출해내어 그것을 해명하는 방향에서 자료를 재형상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적인 사실, 사건자료들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으면 사상교양적기능을 수행하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력사소설은 어느 시대의 어떤 생활을 그리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력사의 진리, 교훈 등을 주제로 내세워 오늘의 투쟁과 생활을 추동하는 무기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의의있는 주제를 내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적관점에 기초하여 력사적사실을 재평가하고 그로부터 의의있는 문제를 도출해내야 한다.

력사소설은 과거의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오늘의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력사에 대하여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줌으로써 력사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교훈을 주는데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을 쓰는 작가가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까지도 력사소설가는 사료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진행한다. 주체적방법론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료를 풍부하게 수집정리하고 심오하게 연구고증하며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력사소설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선차적이고 기초적인 작업공정으로 된다.

력사소설가는 력사연구가에 못지 않게 력사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사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료에 대한 외곡을 정확히 판단극복할수 있으며 선행한 시기의 연구가들과 작가들이 볼수 없었던 력사적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오늘의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새롭게 밝혀내고 그려낼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사대부들과 반동적인 어용사가들에 의하여 력사적사실들이 여러가지로 외곡되어 기록되거나 평가되었다.

반제반봉건투쟁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임오군인폭동만 하더라도 외곡되어 기록되어있다.

봉건사대부들은 임오군인폭동에 대해서 봉건말기 무위영, 장어영에 속한 병사들이 단순히 차별대우와 먹지 못할 식량을 급료미로 내준데 격분하여 들고일어난 반란인것처럼 외곡하였다.

사료를 외곡한 기본목적은 봉건통치배와 외세를 반대하여 일어난 당시 인민들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의 계급적, 민족적성격을 거세하고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애국정신을 마비시키려는데 있었다.

장편력사소설 《임오풍운》에서는 임오군인폭동은 소위 《신식군대》조직을 빌미로 우리 나라에 대한 탐욕적야망을 실현하려고 획책한 일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에 놀아나 구식군대를 해산시키고 일신의 환락을 위해 나라의 군량미까지 마구 탕진한 명성황후와 그 일당의 매국적행위에 대한 애국적반항이였음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밝히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력사발전에서 논 인민대중의 역할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도록 인물들을 설정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인민대중에 의하여 력사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사료에는 대개 봉건통치관료배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있을뿐 인민대중의 투쟁사는 많

은 경우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간략화되었다.

때문에 력사사료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투쟁과정을 방불하게 보여 줄수 있는 평민출신의 인물들을 주요인물로 적극 등장시킴으로써 력사발전에서 논 인민대중의 역할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평민출신의 인물들은 력사에 기록된 실재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킬수 있으며 혹은 주요인물로 등장시킬수 있다.

실례로 장편력사소설 《푸른 갑옷》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중화의병대의 의병장 림중량이 아니라 허구적인인물인 도비(도망친 녀종)의 아들 황바위를 형상의 중심에 내세워 임진조국전쟁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

장편력사소설 《리순신》에서는 임진조국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한 실재한 인물인 리순신을 력사적공적에 맞게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리순신에 대한 풍덕끌어민들의 지지와 방조, 애국투쟁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거북선제조와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인민들이 결정적작용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극적견인력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도록 인물관계와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의 형상수준도 응당 현시기 우리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력사소설창작의 견인력을 보장하자면 인물관계를 극적으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소설창작에서 혈연관계, 애정관계, 구면관계 등 다양한 인물관계형식을 활용하여 인물관계를 보다 극적으로 맺어줌으로써 소설의 견인력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장편력사소설 《군바바》에서는 남상덕과 죽송, 권기홍과 희숙과의 애정관계에 의한 사랑의 곡절과 좌절과정이 강한 견인력을 이루고있다.

또한 부모의 원쑤를 갚으려는 소원을 안고 동생 권기홍에게 군복을 입힌 권순실이 일제의 더러운 앞잡이노릇을 하는 김태진과 인연을 맺도록 하여 그러한 극적인 인물관계가 권기홍과 순실의 운명적인 곡절을 낳도록 하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이야기줄거리도 특색있게 전개하여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인물전기식, 년대기식, 고진감래식, 기록식문학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발전된 요구수준에 따르는 보다 새로운 이야기전개형식을 탐구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이야기조직수법에 능통하여 력사적사건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흥미있게 전달되도록 이야기줄거리형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서는 소재목들로서 《박유복》, 《괵오주》, 《길막봉이》, 《황천왕동이》 등 매 인물들의 이름을 설정하고 그안에서 서로 다른 행적을 걸어온 그들의 소경력을 보여주는 식으로 인물중심의 독특한 구성형식을 취하고있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다주인공들 개개의 성격적개성이 보다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면서도 매 인물들의 형상이 중심주인공의 형상에 복종, 합류되도록 하여 림격정의 개성을 특색있게 부각시키고있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복고주의를 범하거나 문학성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문학성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사실에 어긋나게 형상하는 편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력사소설의 사명과 고유한 특성을 잘 알고 력사소설이 력사교과서와 같은 가치와 문학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질수 있도록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력사주의, 현대성